

자주 쓰이고 있지만 30년대 지식인들에게는 '생존경쟁' '적자생존'이란 말은 바로 세상의 이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로 여겨졌고 나라를 잃은 까닭도 바로 국제간의 생존경쟁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책이 강했다.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이치란 바로 과학자 다윈이 발견한 과학적 진리라 여겨졌고 그래서 「과학데이」를 정할때 당시 지식층은 그의 죽은 50주년을 기념하여 4월19일로 정했던 것이다.

유수대학의 교수라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는 겨우 대학을 졸업은 했지만 케임브리지의 신학 학위를 받았을 뿐이지 자연과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대학졸업 직후 5년동안 배를 타고 세상을 돌아다녔다. 다윈은 귀국하여 잠깐 학술활동을 하는 듯했지만 곧 런던 근처의 다운이란 곳에서 평생을 은둔하다시피 살았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의사로서 제법 가정살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1809~1882)

진화론을 제창한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
그는 평생 한번도 직장을 갖지 못했지만
생물의 種의 進化論을 설명한 「종의 기원」을
출판하여 진화론의 창시자가 되었다.

朴 星 來

〈한국외대교수 / 과학사〉

지금은 「과학의 날」을 4월21일로 기념한다. 하지만 80여년 전에는 「과학데이」가 4월19일이었다. 그 때 과학없이는 민족의 장래는 없다고 걱정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과학대중화운동을 열심히 벌였는데 그때 金容瓏(1897~1987)이 주동해서 1934년 첫 「과학데이」행사를 4월19일에 열었던 것이다. 30년대 「과학의 날」이 4월19일이었던 것은 그 날이 바로 찰스 다윈(1809~1882)이 죽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생존경쟁(生存競爭)이란 말은

진화론을 제창한 영국 과학자 다윈(Charles Darwin)을 모를 사람은 없다. '생존경쟁' '적자생존' '자연도태' '약육강식' 등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 귓가에 맴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인데 이 말들은 말하자면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퍼지게 된 표현이다.

평생 직장 한번 못 갖고...

그런데 이렇게나 유명한 세계적 과학자 다윈이 사실은 평생 한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영국

림을 잘 일궈 놓았기 때문에 다윈은 평생 돈벌이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던 데 대해서 이제까지는 막연히 그가 5년 동안의 여행에서 만성질화에 걸렸다는 정도로 짐작만 했을 뿐이지 정확히 그 원인이 어디 있었던지는 밝혀져 있지 않았었다. 그런데 그 까닭이 실제로 그가 중요한 열대질병에 걸렸던 때문이었음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다.

대졸후 5년간 해양탐사

대학시절에 다윈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사람은 식물학 강사였던 존 헨슬로였다. 헨슬로는 22살의 찰스에게 영국 해군의 해양탐사선 비글호(H.M.S Beagle)의 선장 휘츠로이를 소개했던 것이다. 휘츠로이선장은 청년 다윈에게 박물학자로 자기 배를 타고 몇년동안 남아메리카 해안 등을 조사하러 가자고 권했다. 1831년 겨울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국 이 항해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항해는 예정

보다 길어져 5년 동안이나 그를 바다에 머물게 했다.

그 항해는 결국 다윈에게서 건강을 앓아갔지만 또한 그만큼 값진 여행이었다. 그가 이 여행에서 관찰한 경험은 뒷날 두꺼운 한권의 책으로 출판되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그 번역판이 나왔다. 「찰스 다윈의 비글호 항해기」(전파과학사, 1993)가 그것이다. 원래 「비글호 항해기」(The Voyage of the Beagle)는 다윈이 그의 항해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몇가지 모양으로 출판되었지만 1845년에 보다 완전한 모양으로 나왔고 그것이 다시 1880년 수정 간행되어 오늘에 전하고 있다.

항해에서 건강을 해친 다윈은 귀국하자 바로 은퇴하여 평생을 연구와 집필로 보냈다. 1839년 1월 외사촌 누이 엠마 웨지우드와 결혼하여 자녀 열명을 낳았고 73세까지 장수를 누렸지만 실제로 그의 건강은 아주 나빴던 것이다. 다윈의 학문활동은 이런 은둔생활 속에서 계속되었다.

「종의 기원」 출판 진화론 제창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부를 계속한 그는 1859년 「종의 기원」을 출판하여 진화론의 창시자로 꼽히게 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나의 조사로는 지금부터 1백11년전인 1884년 2월11일 「한성순보」(漢城旬報)의 기사에서 처음 그의 이름과 진화론이 보인다. 그때는 이름도 달라서 다윈은 '달이온(達爾溫)'으로 표기하고 진화론은 순화설(醇化說)이라 이름지어져 있다. 「한성순보」는 1883년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 순한문체였다. 그리고 여기 실린 기사는 거의 당시 중국의 신문, 잡지

에서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었으니, 이 기사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漢城旬報에 최초로 소개

이 기사에는 서양에서의 과학 발달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다. 린네의 생물분류,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등을 소개한 다음 다윈이 생물의 종류가 생겨나는 이치를 세상을 돌아다니며 조사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생물은 살고 있는 환경, 짝짓기, 그리고 강약에 따라 그 종류의 생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1859년 다윈은 「종의 기원」을 지어 자기 주장을 펼쳤고 이 책은 나라들마다 다투어 번역했다고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다윈의 책 이름도 지금처럼 「종의 기원」이 아니라 사물의 종류를 그 근원을 찾아 설명한다는 뜻인 「물류추원」(物類推原)이라 되어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에 처음 다윈의 진화론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지식인들의 관심으로 떠오른 것은 20세기로 들어온 다음의 일이었다. 1900년대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존경쟁'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1908년 「태극학보」에 실린 장응진(張鷹震)의 글은 제목에 '진화학상(進化學上) 생존경쟁의 법칙'이라 하여 생존경쟁이란 말을 담고 있다.

다윈이 생존경쟁을 내세운 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종이 생겨나는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즉 이 세상 생물들은 같은 종 사이에서도 언제나 먹을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알맞은 특성을 가진 놈은 살

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놈은 도태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자연은 생물의 종을 아주 조금씩 바꿔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주 오랜 시간 속에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종류는 하느님이 만들어준 그대로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다윈의 이런 이론이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도 여러가지 종류의 생물이 살게된 이치는 지구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런 생물의 종(種)의 진화론(進化論)을 설명한 다윈의 책이 보통 「종의 기원」이라 알려진 그의 대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몇가지 번역이 나와 있다.

「비글호 항해기」 번역 출간

이미 뉴턴에 의해 우주가 신의 섭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유인력에 의해 저절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장치와도 같음이 드러났고 이제 다윈에 의해 생물도 신의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놀랍고도 무서운 힘에 의해 진화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생물계나 생물계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일 따름이지 신의 존재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도 학계에는 진화론에 반대하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다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연구할 것은 별로 없다. 「종의 기원」이 몇차례 번역되었고 그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한 학술적인 책은 생물학자 박相允교수의 「찰스 다윈」이 있다. 또 그의 「비글호 항해기」는 1993년에야 처음 번역되어 나왔을 뿐이다. ①